

브라질, 바이오디젤 생산 세계2위

2008년 8억5000만리터 생산 ... 3만5000개 주유소 B2 디젤판매 시작

브라질이 2008년 세계 2위의 바이오 디젤 생산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브라질은 1월1일부터 기존 디젤연료에 바이오디젤 2%를 의무적으로 혼합한 B2 디젤 판매에 들어가면서 생산이 확대돼 이태리 및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바이오디젤 생산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히카르두 도르넬레스 브라질 에너지부 재생연료국장은 “바이오 디젤 생산량이 2007년 4억5000만리터에서 2008년 8억5000만리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각국의 수입 장벽이 아직 높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바이오디젤 생산 및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브라질산 바이오디젤의 60-70%는 콩기름, 나머지는 동물성 기름과 피마자, 해바라기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ha당 생산량에서 콩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피마자와 해바라기 등 식물의 재배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라질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에너지 관리국(ANP)은 전국 3만5000개 주유소를 통해 B2 디젤 판매를 시작했다.

ANP는 B2 디젤 판매를 통해 2008년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8억4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억1000만달러의 디젤연료 수입비용을 절감하고 디젤연료 수입 의존도를 7%에서 5%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을 5%까지 높인 B5 디젤 판매도 실시할 방침이다.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은 현재 49개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25억리터 수준이다.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농촌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수준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브라질 바이오디젤 산업의 고용 규모는 60여만명 정도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04>